

## 가족 단합대회 개최



전국보일러설비협회 남양주 구리지회(이기섭 지회장)는 지난 6월7일 간부회원 가족들과 함께 단합모임을 가졌다.

이기섭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“그동안 침체 되어 온 지회를 활성화 하기위해 간부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고” 당부하고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풀고 심기일전하는 여행이 되도록 하자고 인사를 했다.

이날 여행에서는 전북 부안군 소재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과 그 오른쪽 닭이봉 일대 1.5km의 층암 절벽과 바다를 총칭하는 채석강과 부안군 진서면 석 포리에 있는 내소사와 대한민국의 미래 새 만금,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땅 새 만금,

전북의 희망 사업 새 만금 등을 여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.

구리지회 주행로총무는 “채석강은 오랜 세월과 바닷물의 걸작품인 퇴적암 절벽과 해안절벽에는 먼 바다에서부터 깎여들어온 암반이 넓다랗게 펼쳐져 있어 해안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” 며 “자연의 신비스러움에 머리 숙여 진다” 고 소감을 전했다.

여행에 참석한 회원가족은 “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거대한 방조제를 설치하는 공사를 볼 때 자연의 현상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” 고 감탄했다.